http://dx.doi.org/10.5392/JKCA.2016.16.12.291

장년층(長年層)의 은퇴 후 삶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대응
-50+센터의 역할 정립을 중심으로-
New Aging Support Policy in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50 Plus Center

정재한*, 김형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정관리연구소*, 성결대학교 파이데이아학부**

Jae-Han Jung(jjh7118@hanmail.net)*, Hyoung-Sung Kim(hyoungsung@sungkyul.ac.kr)**

요약

본 연구는 새로운 노인층을 구성하는 장년층 세대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50+센터의 역할 정립을 중심으로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장년층 세대는 기존 노인층에 비해 사회 참여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종합복지관 등 기존 기관들은 해당 역할 수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0+센터는 서울의 장년층 세대가 은퇴 이후 최초로 진입하는 공공영역의 기관으로 그들의 인생설계교육 및 사회참여 교육을 중심으로 역할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50+ 세대 | 신노년층 | 베이비붐 세대 | 장년층 | 50+센터 |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finding the new-aging support policy in local government through establishing the role of the 50 Plus Cente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ew seniors had higher social participation needs than the old seniors. But existing institutions like Senior Center were lacking such a role. Therefore, 50 Plus Center that is the first public institution to retired citizens of Seoul should focus on Life Design Education and Community Involvement Education.

■ keyword : | Generation Over Fifty | New Aging | Baby Boom Generation | 50 Plus Center |

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기존 노인 개념의 변화에 따른 연령대의 세분화에 대한 논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고령자 또는 실버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50, 60대를 인생의 열매를 맺는 시기라는 의미로 실년(實年)이라고도 한다. 또한 중국에서는 50대를 숙년(熟年), 60대를 장년(長年), 70대 이상은 존년(尊年)이라고 부르는 등 여러 나라가 건강하고 젊은 노인이 증가하는 현상 속에서 노인의 호칭을 고민하고 있다[1].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의 연령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지원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2].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법에서 사용하는 '노인등'을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3]. 한편 서

*본 논문은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2015)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과학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접수일자 : 2016년 10월 10일
수정일자 : 2016년 11월 16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1월 16일
교신저자 : 김형성, e-mail : hyoungsung@sungkyul.ac.kr

동필(2015)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은 평균 69.8세로 70세가 노인의 나이로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4]. 즉, 이제 60대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노인으로 불리기를 싫어하고 자신들은 기존의 노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 차이를 바탕으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에서 장년층(長年層)에 대한 정책 대응을 구체화하고 있다. 계획은 고령자에게 다양한 노동기회 제공,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사전예방적인 건강관리체계 구축,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를 중점 추진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도 2014년에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장년층(長年層) 지원을 위한 연구센터 및 교육 시설(50+센터, 50+캠퍼스)을 건립하고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일자리교육, 사회공헌,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5년에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인생이모작지원과를 조직하였으며 인생이모작지원센터[1]를 개소하였다. 또한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충청남도, 대전, 부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노인층인 장년층(長年層)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장년층(長年層)에 대한 개념의 모호함과 노인종합복지관 등 기존 관련 기관과의 역할 중복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50+센터의 역할이 장년층(長年層)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특화되지 않고 노인과 관련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즉 현재와 같이 장년층(長年層)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정책 대상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수요를 예측하여 이에 따른 정책을 입안 및 집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 서울시의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명칭은 2016년부터 50+센터로 변경됨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제기 하에 새로운 노인층을 구성하는 50+ 세대와 기존 노인층과의 니즈 차이를 분석하고, 해당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50+센터의 역할 정립을 중심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장년층(長年層)의 정의 및 특징

장년층(長年層)은 대한민국의 50-65세 사이에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개념은 학문적으로 정의된 바가 거의 없다. 다만, 법・제도 상 서울시에서 2015년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해당 연령대를 50+ 세대로 규정하고 장년층(長年層)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5].

해당 연령대와 유사한 연령대에 대한 연구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라는 개념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베이비붐 세대는 세계적으로 공용되는 단어이지만 국가마다 그 출생 시기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증한 시점(1955년)에서부터 산아제한정책의 도입을 통해 눈에 띄게 출산율이 둔화되는 시점(1963)까지 9년의 기간 동안 출생한 세대를 지칭한다[6]. 이들 연령대에서는 초등학교 진학시기에 취학율이 100%에 근접했고,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혜택을 받았으며 1958년생부터는 고교평준화 이후에 고등학교를 진학하였으나 대학의 진학률은 30%를 넘지 못했다. 더불어 이들이 학교교육을 마친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는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이 지속되던 시기로 경제・사회적 자원과 일자리 기회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 규모로 인하여 세대 내의 경쟁도 심하였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들은 가장 사회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30대 중반과 40대 초반에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되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최대 피해자가 되었으며, 현재는 정년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

이 세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존 세대에 비하여 가족규모가 감소하여 핵가족화가 보편화되었고, 교육수준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새로운 취미활동을 모색하

고 있고 적극적인 소비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 노인 세대에 비해 가정을 중시하고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등 연금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 또한 여행에 대한 욕구가 높고, 노후생활에 있어 여가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인다. 또한 기존 노인과 마찬가지로 노후 생활에 있어 경제활동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고 자신의 성공적인 노후생활에 있어 건강과 소득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8]. 안신현(2011)은 50대 베이비붐 세대는 종전의 시니어 세대와는 다른 소비 행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뉴시니어(New Senior)'로 지칭하고 뉴시니어 세대는 건강, 여유있는 자산, 적극적인 소비의욕을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시간적 여유와 문화를 향유하려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9].

결론적으로 현재 장년층(長年層) 세대들은 비록 IMF의 외환위기를 겪었으나, 70대 이상의 기존 노인 세대보다 많은 교육 기회와 고도성장의 수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이전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구와 다른 욕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50+센터의 현황 및 유사기관 비교 분석

2.1 50+ 센터의 현황

50+센터는 퇴직(전)후 베이비붐세대의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제2의 사회참여 활동으로 전환 및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서울시 내에 도심권 50+센터가 시립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동작·영등포 50+센터가 최근 구립으로 설립되었고 각 구에서 구립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이 중 도심권50+센터는 2014년 7월에 개관하여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직업현장에서 은퇴 예정이거나 퇴직한 베이비부머세대에게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도심권50+센터의 사업 내용은 생애설계지원사업, 사회참여사업, 특화사업, 기획연구사업, 인적자원관리사업으로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1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생애설계 지원사업으로 시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후반기 계획을 지원하도록 재무, 건강, 여가, 일,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애설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 사회참여사업은 활동의지가 강한 커뮤니티를 발굴하고, 모임을 적극 지원하여 다양한 커뮤니티가 함께 소통하고 발전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공동체 가치공유와 올바른 방향성을 확립하여 발전할 수 있는 지역 행사를 지원한다. 넷째, 문화 컨텐츠에 관심이 많고 공유하고자 하는 베이비붐세대를 대상으로 기획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섯째, 인적자원 관리사업은 전문 인력풀을 구성하여 재능기부를 통해 강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관에는 양질의 프로그램 지원하도록 하며 청년과 연계하여 전문성을 발휘하고 세대격차를 줄이는 기능을 한다.

2.2 유사기관 비교

은퇴 후 삶에 대한 지원을 위해 중앙 정부 및 지자체,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기관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특히 50+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퇴직 전후 연령층을 대상으로 재취업, 창업교육 등 서비스와 이용대상에 있어 중첩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인 50+센터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들 간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10-14].

우선 50+센터, 노인종합복지관과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제도적 측면에서 비교해본 결과, 유사점과 차이점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세 기관 모두 설립 근거가 모두 존재하지만 50+센터는 조례를 근거로 하는 반면 다른 두 기관은 법률을 설립 근거로 하고 있다. 즉 50+센터는 서울특별시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었고,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법(제36조)을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용 대상은 50+센터는 이용대상자를 장년층(만50세-만65세)으로 명확히 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나 노인종합복지관과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이용대상의 나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이용대상자는 노인종합복지관은 60세 이상이고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40세 이상으로 이용대상자의 나이가 겹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관별로 지원하는 사업을 분석하면, 50+센터는 사회공헌과 재취업, 인생설계 프로그램, 여러 교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는 기업으로부터 퇴직(예정)하는 40대 이상의 근로자와 기업구조조정 및 정년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경력/연령 무관)를 대상으로 양질의 전직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구인기업의 채용정보와 구직자를 매칭하여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종합복지관은 교양교육, 취업교육,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 노인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3. 선행연구 검토 및 심층면접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전 세대와 다른 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정경희 외(2010)는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신노년층의 등장에 따라 정책패러다임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인 생산성만을 강조하는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회적 생산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연령 통합적 사회로의 뱡향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9]. 이러한 사회는 연령을 진입장벽으로 이용하지 않고 상이한 연령층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말하는 것으로 연령이 특정 사회적 역할로 진입과 퇴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인 유연한 삶을 위하여 연령장벽을 유연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변루나 외(2011)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사회참여 지원정책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사회참여 의사 및 능력이 있는 노인을 기본 대상으로 하며, 참여자가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활동하게 하는데, 이 때 고용지원 정책을 이원화 하여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자원봉사와 같은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클럽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실버인재센터에서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들은 주로 소득보전이 필요한 참여자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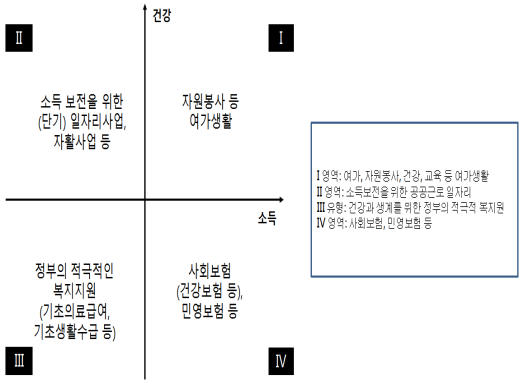


그림 1. 사회참여 정책 분석 개략도

한편 강상경(2012)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 요인의 세대 간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 중 수급자라는 요인이 베이비붐 이전세대나 현 베이비붐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16]. 김현정 외(2012)는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활동참여 유형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 형태가 소극형, 활동형, 경제활동중심형으로 분류되며 사회활동참여가 베이비부머의 은퇴이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성에 맞는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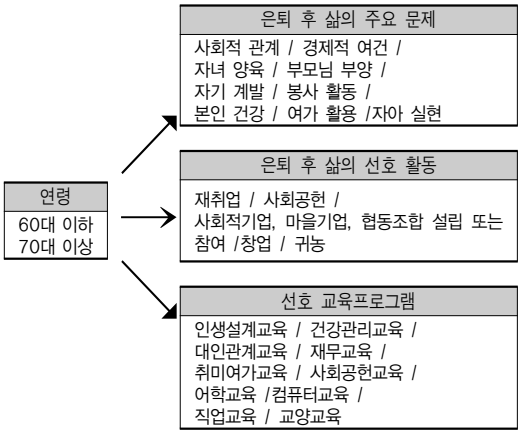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인생이모작센터와 노인복지관 이용자 각각 3명씩 총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은퇴 후 삶에 대한 사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앞의 교육수요는 경제적 필요와 사회공헌, 여가활용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경제적 필요가 큰 집단은 자신의 전문성을 고려한 소득획득, 사회공헌에 관심이 있는 집단은 공헌 활동과 방법이 무엇인지, 여가활용에 관심이 있는 집단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통한 사회참여에 50+센터가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4. 연구모형

본 연구는 새로운 노인층을 구성하는 장년층(長年層) 세대와 기존 노인층과의 사회·경제적 욕구차이를 분석

하고, 그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층 간 욕구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표 1. 연구모형



연령에 따라서 은퇴 후 삶의 주요 문제, 은퇴 후 삶의 선호 활동, 선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대상자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설문을 개발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인식을 측정하였다.

Ⅲ. 은퇴 후 삶에 대한 인식 조사

본 연구에서는 50+센터, 노인복지관 등 관련 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은퇴 후 삶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5년 6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한달간 오프라인 설문지 배포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750부의 설문을 배포하여 681부의 설문을 회수하였고 (회수율 : 91%)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14부를 제외한 667부를 분석하였다.

1. 응답자 특성

응답자 연령은 40대 이하가 75명, 50대가 138명, 60대가 193명, 70대 이상이 232명로 나타났다. 남성이 315명, 여성이 326명이었으며 응답자의 62.8%가 퇴직자이고 33.9%가 현직자였다.

표 2. 응답자 특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연령	40대이하	75	11.2	11.8
	50대	138	20.7	21.6
	60대	193	28.9	30.3
	70대이상	232	34.8	36.4
	소계	638	95.7	100.0
	무응답	29	4.3	
성별	남자	315	47.2	49.1
	여자	326	48.9	50.9
	소계	641	96.1	100.0
	무응답	26	3.9	
퇴직 여부	퇴직	419	62.8	65.0
	현직	226	33.9	35.0
	소계	645	96.7	100.0
	무응답	22	3.3	
총계		667	100.0	

2. 은퇴 후 삶의 주요 문제에 대한 인식

2.1 퇴직 후 삶에 대한 고민 여부

응답자의 31.2%가 퇴직 후 삶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고 15.4%는 보통으로 응답하였으며 58.0%의 응답자가 퇴직 후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퇴직 후 삶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이유는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퇴직 후를 고민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퇴직 후 변화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12.3%와 11.6%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도 60대 이하의 고민 정도는 3.63점으로 70대 이상의 3.16점에 비해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현재가 퇴직 후 삶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

표 3. 연령대별 퇴직후 삶에 대한 고민 정도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t
퇴직후 삶에 대한 고민	60대 이하	390	3.63	1.045	0.474	4.777***
	70대 이상	219	3.16	1.240		

* : p<.05, ** : p<.01, *** : p<.001

2) 연령이 높을수록 퇴직 후 삶에 대한 우려가 희석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조사 질문을 퇴직 당시에 퇴직 후 삶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했었는지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해석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2 은퇴 후 삶의 주요 문제

60대 이하와 70대 이상 모든 연령에서 본인 건강이 퇴직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60대 이하가 본인 건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4.60으로 70대 이상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인 4.41에 비해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4. 연령대별 퇴직후 삶에 대한 고민 정도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t
사회적 관계	60대 이하	391	3.67	.920	.242	2.988**
	70대 이상	223	3.43	1.041		
경제적 여건	60대 이하	397	4.28	.699	.392	6.059***
	70대 이상	226	3.88	.897		
자녀 양육	60대 이하	385	3.65	.967	.461	4.920***
	70대 이상	217	3.19	1.312		
부모님 부양	60대 이하	387	3.49	1.097	.800	7.496***
	70대 이상	210	2.69	1.482		
자기 계발	60대 이하	395	4.16	.744	.353	5.020***
	70대 이상	218	3.81	.973		
봉사	60대 이하	396	3.86	.728	.140	1.977*
	70대 이상	219	3.72	1.009		
본인 건강	60대 이하	399	4.60	.597	.194	3.583***
	70대 이상	228	4.41	.736		
여가 활용	60대 이하	394	4.16	.692	.041	.681
	70대 이상	226	4.12	.773		
자아 실현	60대 이하	394	4.13	.760	.222	3.211**
	70대 이상	223	3.91	.926		

* : p<.05, ** : p<.01, *** : p<.001

건강 이외에 중요 문제로는 60대 이하의 경우 경제적 여건의 중요성이 4.28점으로 다음 순이었고 자기계발 및 여가활용, 자아실현, 봉사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70대 이상의 경우 여가활용이 4.12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고 자아실현, 경제적 여건, 자기계발, 봉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0대 이하와 70대 이상의 퇴직 후 삶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여가활용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60대 이하의 중요도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은퇴 후 하고 싶은 주요 활동에 대한 인식

3.1 은퇴 후 삶의 선호 활동

모든 연령에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60대 이하에 비해서 70대 이상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60대 이하가 퇴직 후 하고 싶은 활동은 사회공헌활동이 3.4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재취업이 3.36점, 사회적기업 등 설립 또는 참여가 3.09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70대 이상의 경우 사회공헌활동이 2.7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재취업이 2.48점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활동들은 1점대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령대별 퇴직 후 삶의 선호 활동 인식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t
재취업	60대 이하	373	3.36	1.164	.878	8.012***
	70대 이상	216	2.48	1.463		
사회공헌	60대 이하	315	3.45	1.062	.747	6.723***
	70대 이상	199	2.70	1.452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설립 또는 참여	60대 이하	321	3.09	1.218	1.235	11.414***
	70대 이상	200	1.86	1.175		
창업	60대 이하	327	2.76	1.286	1.068	9.727***
	70대 이상	201	1.70	1.119		
귀농	60대 이하	309	2.51	1.186	.796	7.565***
	70대 이상	192	1.72	1.075		

* : p<.05, ** : p<.01, *** : p<.001

3.2 은퇴 후를 위한 선호 교육 프로그램

은퇴 후를 위한 선호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에서 건강관리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취미여가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60대 이하의 건강관리교육에 대한 선호도는 4.22점, 취미여가교육에 대한 선호도는 4.04점이고 70대 이상의 건강관리교육에 대한 선호도는 4.23점, 취미여가교육에 대한 선호도는 3.99점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선호 교육프로그램부터 연령 간에 차이가 나타나긴 했으나 인생설계교육, 대인관계교육, 재무교육, 사회공헌교육에 대한 선호가 동일하게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었다. 60대 이하의 경우 인생설계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3.94점으로 세 번째로 높은 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공헌교육, 재무교육, 대인관계교육이 모두 3.84점으로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의 경우 대인관계교육에 대한 선호가 3.78점으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공헌교육이 3.45점, 인생설계교육이 3.3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인관계교육에 대한 선호는 연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생설계교육은 0.628점, 재무교육은 0.618점, 사회공헌교육은 0.391점 만큼 60대 이하의 선호도가 70대 이상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다른 교육프로그램의 경우도 60대 이하가 70대 이상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연령대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t
인생설계 교육	60대 이하	378	3.94	.834	.628	7.790***
	70대 이상	214	3.31	1.108		
건강관리 교육	60대 이하	384	4.22	.672	-.009	-.155
	70대 이상	223	4.23	.759		
대인관계 교육	60대 이하	377	3.84	.815	.051	.720
	70대 이상	218	3.78	.866		
재무교육	60대 이하	381	3.84	.890	.618	7.304***
	70대 이상	216	3.22	1.152		
취미여가 교육	60대 이하	381	4.04	.748	.049	.744
	70대 이상	218	3.99	.803		
사회공헌 교육	60대 이하	381	3.84	.814	.391	5.112***
	70대 이상	215	3.45	1.026		
어학교육	60대 이하	377	3.46	.948	.432	4.757***
	70대 이상	216	3.03	1.240		
컴퓨터 교육	60대 이하	376	3.64	.959	.538	5.561***
	70대 이상	220	3.10	1.398		
직업교육	60대 이하	372	3.13	1.043	.845	9.128***
	70대 이상	215	2.28	1.143		
교양교육	60대 이하	379	3.82	.888	.542	6.293***
	70대 이상	219	3.28	1.204		

* : p<.05, ** : p<.01, *** : p<.001

Ⅳ. 결 론

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새로운 노인층을 구성하는 장년층(長年層) 세대와 기존 노인층과의 니즈 차이를 분석하고, 해당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50+센터의 역할 정립을 중심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장년층(長年層) 세대와 기존 세대의 은퇴 후 삶에 대한 욕구 차이를 분석하고 유사 기관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 분석결과, 먼저 장년층(長年層) 세대와 기존 세대들의 특성 및 욕구의 차이를 살펴보면, 장년층(長年層)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높고, 총자산이 비교적 높았다. 그리고 욕구 측면에서는 건강이나 경제적 욕구는 이전 세대와 동일하게 높으나 이전 세대들과 달리 문화적 욕구와 사회참여 욕구가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도 유사하게 퇴직이후의 삶에 대한 인식에서는 세대 간에 비슷한 인식을 보이고 있지만, 장년층(長年層) 세대는 퇴직이후 살고 싶은 삶에 대해 재취업과 사회공헌을 꼽은 반면 이전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업에 따른 유사기관 관련 사업을 비교분석한 결과, 노인종합복지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기존 기관에서는 평생교육 및 건강교육과 재취업 활동 등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공헌 및 인생설계 프로그램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정책 제언 : 50+센터의 역할 정립

2.1 방향성

서울시가 추진 중인 50+센터는 최초 퇴직(전)후 베이비붐세대의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제2의 사회참여 활동으로 전환 및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5가지 사업—생애설계지원사업, 사회참여사업, 특화사업, 기획연구사업, 인적자원관리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시키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사회적 방향성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서울시의 요구까지 같이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50+센터의 정체성과 방향성 설정을 위해서는 먼저, 50+세대의 특성과 욕구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해야 하는 곳에 그 역할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 앞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년층(長年層) 세대의 욕구가 재취업과 사회공헌활동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50+센터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사회참여 의사 및 능력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2가지 사업을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우선 여가 및 자원봉사 등을 원하는 은퇴자 들을 위해서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쉽게 사회참여가 가능한 노인클럽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고, 다른 하나는 일을 원하는 은퇴자들을 위

해서는 실버인재센터를 시정촌 별로 설치하여 언제든지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대상인 60대 이하 즉, 50+센터의 사업대상의 경우 기존의 노인층보다 보유한 자산이 많고, 가지는 욕구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래 [그림 2]와 같이 장년층(長年層) 세대의 기존 사회참여 정책 유형 중 1사분면의 소득보전을 위한 일자리 사업과 2사분면의 자원봉사 등 여가활용 영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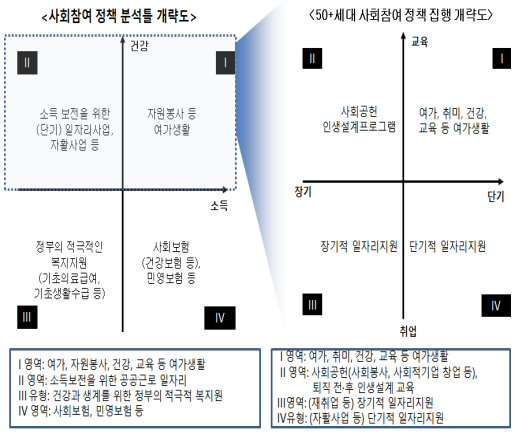


그림 2. 50+센터의 역할 접근

특히 50+센터의 역할 정립과 관련하여 장년층(長年層) 세대의 문화 및 사회부분 욕구에 대한 빈틈을 발견하고 그 지원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50+센터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의 허브 역할을 통해 은퇴전후 대상자들이 성공적인 노년시기를 보내기 위한 교육과 취업의 거버넌스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50+센터는 사회공헌, 인생설계프로그램과 같은 교육적 측면과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창업의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여가, 취미, 건강, 교육 등 여가생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과 고용적 측면의 취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가 빈 공간을 보이고 있는 사회공헌과 인생설계 프로그램 부문을 50+센터의 방향성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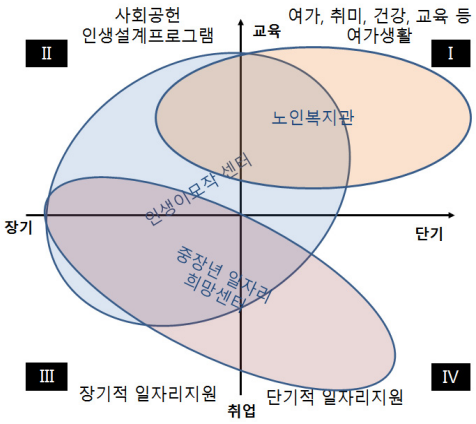


그림 3. 유사기관과 50+센터의 역할의 차별성

2.2 역할 정립

설문조사 결과 가장 주목해야 할 측면은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써 은퇴설계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18][19] 최근 퇴직 전 은퇴설계 교육이 제도화되었으나 아직은 이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 미비하다. 그리고 50+센터는 서울시 조례에 의하여 서울시에서는 은퇴자가 이후의 삶을 고려할 때 최초 진입할 수 있는 공공영역의 기관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그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50+센터는 서울의 장년층 세대가 은퇴이후 최초 진입하는 공공영역의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최소한 은퇴 1-2년 전부터 인생이모작 설계 교육을 실시하고 둘째, 교육과 병행하여, 은퇴자의 심리적 접근을 통한 욕구조사와 역량조사 실시해야 한다. 즉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을 통하여 은퇴자들의 상실감에 대한 심리적 접근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은퇴자들의 욕구의 방향을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은퇴자 심리치료와 욕구정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역량 및 욕구조사를 통하여 인력 Pool을 구축하고, 도출된 개개인의 역량과 욕구에 따라, 이에 맞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으로 연결시키는 연결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 및 민

간 부문에서 많은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로 개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파악할 수 없어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50+센터는 이를 설계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사회공헌의 욕구에 대하여서는 센터가 직접 개입하여 교육→(취업)활동→(심화)재교육→창업 또는 (취업)활동의 사회공헌 선순환고리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한겨레, "'젊은 노인' 늘어나는데 호칭은 세분화 안되나," 2015.07.21.

[2] 노인복지법, 법률 제13474호, 2015.8.11.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3647호, 2015.12.29.

[4] 서동필, *병치레 하는 갑부 No! 건강한 일용 근로자 Yes!,* NH농협증권, 2015.

[5]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6167호, 2016.3.24.

[6] 방하남, "베이비붐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월간 노동리뷰, 2011(2).

[7] 이용재,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특성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pp.253-261, 2013.

[8] 정경희, 손창균, 박보미,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

[9] 안신현, *뉴시니어 세대의 3개 키워드*, 삼성경제연구소, 2011.

[10] http://www.dosimsenior.or.kr/

[11] http://www.nowonsenior.or.kr/

[12] http://www.happysenior.or.kr/

[13] http://www.kaswcs.or.kr/

[14] http://4060job.korchamhrd.net/

[15] 변루나, 김영숙, 현택수,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사회참여 지원정책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1권, 제4호, pp.315-344, 2011.

[16] 강상경, "삶의 만족도와 관련요인의 세대 간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베이비 붐 세대와 이전 및 이후 세대 간 비교," 사회복지연구, 제43권, 제4호, pp.91-119, 2012.

[17] 김현정, 강현정, "베이부머의 사회활동참여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3호, pp.1090-1099, 2012.

[18] 유용식,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2호, pp.738-747, 2013.

[19] 강인,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 인식과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9호, pp.460-472, 2016.

저 자 소 개

정 재 한(Jae-Han Jung) 정회원

- 2004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학사)
- 2006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석사)
- 2010년 8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박사)
- 2014년 8월 ~ 현재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정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

<관심분야> : 조직관리, 지방행정, 항공정책 등

김 형 성(Hyoung-Sung Kim) 정회원

- 2001년 8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학사)
- 2004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석사)
- 2009년 8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성결대학교 파이데이아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성과평가, 지방행정, 갈등관리 등